



제목	Cyrus the Messiah?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Isaiah 45:1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권호)
발행일	2002. 10.
저자	Lisbeth S. Freid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373-393
ISBN 또는 ISSN	0017-8160

내용 요약

이 논문은 키루스 신탁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사야서 45장 1절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의 역사적 배경을 규명하고 있다. 이 구절은 학자들의 오랜 논쟁거리였다. 이 구절은 제2이사야(40-55장)의 것으로 포함된다. 이 구절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키루스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사야서의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추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키루스라는 이름은 본래부터 있었지만, ‘기름부음 받은’의 칭호를 이사야서의 저자가 의도한 것이 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기름부음 받는 행위는 키루스가 왕의 직위를 수행하는 임무를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셋째, 이사야서의 저자는 키루스를 유대인의 약속된 구원자로 보기는 하지만, 키루스의 기름부음 받은 행위가 한시적인 직위 수여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주장이다. 넷째, 이사야서의 저자는 키루스를 다윗왕조의 후계자로 보았다는 주장이다.

이 논문의 저자는 마르둑 제사장들처럼 제2이사야도 지역의 왕에게 한정되는 신학을 페르시아의 정복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한다. 제2이사야의 목적도 마르둑 제사장의 목적과 같다. 마르둑의 제사장에게 동기부여했던 이유가 제2이사야에게도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집트와 바벨론의 제사장들처럼 제2이사야도 키루스가 유대인의 진정한 왕, 즉 주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확신했다. 키루스는 합법적인 왕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키루스는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시켰다. 그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기물들을 되돌려 보냈으며, 회복된 시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가했다.